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5.06.24

KOSDAQ
GLOBAL

코스닥 글로벌 상장법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에코프로비엠 (247540)

LIB 소재가격(P) 안정, 물량(Q) 증가로 턴어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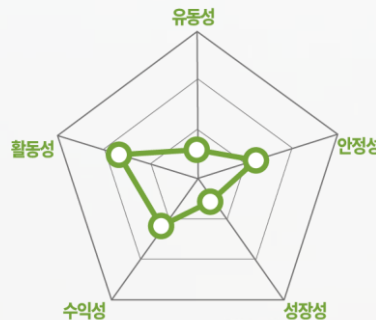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016년 에코프로의 2차전지소재 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2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으로 하이니켈 NCA, NCM 계열 양극재를 주로 제조하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SDI, SK온 양사가 전체 매출비중의 95% 이상 차지. 1Q25 기종별 매출비중은 EV용 79.9%, PT(Power Tools) 12.6%, ESS 7.5% 차지
- 투자포인트: 1)배터리 소재가격 안정으로 수익 정상화 시기 진입, 2)2026년 헝가리 법인 양산으로 유럽지역 선점효과 기대
- 2025년 매출액은 3.15조 원(YoY +13.8%), 영업이익 318억 원(YoY 흑자전환) 전망. 양극재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물량 증가로 상저하고로 매출 증가 예상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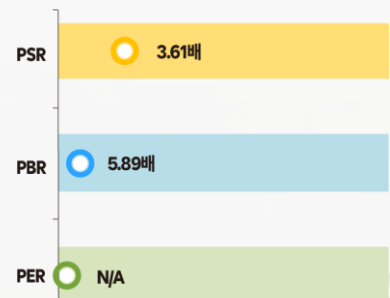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에코프로비엠 (247540)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DAQ

전자와 전기제품

배터리 소재가격 안정으로 수익 정상화 시기 진입

2023년 하반기부터 EV시장 캐즘 및 메탈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실적 악화 불가피, 메탈가격 안정과 판매량 증가로 1Q25부터 매출액과 수익성 회복 국면 진입

2026년 헝가리 법인 양산으로 유럽지역 선점효과 기대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연산 5.4만 톤 규모 헝가리 공장 2026년 1분기 상업생산 예정, 헝가리공장은 유럽 2차전지 시장의 배터리 현지화 니즈 및 핵심원자재법(CRMA) 등 원자재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사 다변화 기대

現주가는 코스닥 및 동종사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형성

現주가는 2025년 추정 BPS대비 PBR 6.0배로 코스닥평균(PBR 2.5배), 양극재 평균 PBR 2.9배대비 할증 거래 중. 향후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여부는 동사의 최대 수요시장인 유럽시장의 배터리 수요 성장, 최대 고객사인 삼성SDI의 실적 회복, 헝가리 신규공장의 유럽시장 선점에 따른 유럽내 현지화 수혜 및 고객사 다변화, SK온의 북미 新공장 가동에 따른 판매 증가 여부 등이 좌우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4,856	53,576	69,009	27,668	31,500
YoY(%)	73.8	260.6	28.8	-59.9	13.8
영업이익(억원)	1,150	3,807	1,560	-341	318
OP 마진(%)	7.7	7.1	2.3	-1.2	1.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008	2,323	-87	-965	-360
EPS(원)	1,145	2,433	-89	-987	-368
YoY(%)	106.9	112.5	적전	적지	적지
PER(배)	108.1	37.9	N/A	N/A	N/A
PSR(배)	7.3	1.6	4.1	3.9	3.2
EV/EBITDA(배)	72.4	21.8	119.4	164.7	79.7
PBR(배)	20.9	6.6	20.5	6.3	6.0
ROE(%)	20.3	24.3	-0.6	-6.3	-2.1
배당수익률(%)	0.2	0.5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6/20)	102,000원
52주 최고가	198,600원
52주 최저가	81,200원
KOSDAQ (6/20)	791.53p
자본금	489억원
시가총액	99,75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9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30억원
외국인지분율	11.72%
주요주주	에코프로 외 14 인 50.3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5	-106	-45.8
상대주가	4.4	-24.5	-41.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된 기업



기업 개요

회사 연혁

에코프로 2차전지소재 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 5월 1일 에코프로의 2차전지소재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다. 2019년 3월 코스닥에 신규상장 되었으며,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되었다. 2022년 11월에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종목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입증하였다.

동사의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된 친환경 소재 기업이다. 2004년 정부 주도의 '초고용량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6년 제일모직과 공동으로 양극재 원재료인 전구체 사업을 시작하였고, 제일모직으로부터 NCA 양극활물질 기술을 이전받으며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에코프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High-Nickel계 NCA 양극소재를 상용화하였다. 그 해 제 1공장을 준공하였으며, 2009년 제 2공장, 2015년 제3공장을 준공하였다. 에코프로는 2008년 삼성SDI, 2009년 LG화학, 2013년 SONY 등 국내외 주요 배터리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16년 에코프로의 2차전지소재 사업부가 물적분할하며 동사가 설립되었고, 동사는 2016년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여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보유한 EV용 NCM811 양극활물질 양산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로 EV용 CSG 양극재(NCM811)를 상용화하였다. 2017년에는 양극활물질 제4공장, 2018년 제4-2공장, 2019년 제5공장을 완공하였다. 2021년에는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NCM9½ 제품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동사와 삼성SDI가 합작하여 설립한 에코프로이엠이 2021년 제6공장(연산 약 3.6만톤), 2022년 제7공장(연산 약 5.4만톤)을 준공하면서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동사의 주요 사업장으로는 오창캠퍼스와 포항캠퍼스가 있으며, 본사를 포함한 CAM1~4는 오창캠퍼스에, CAM5~8은 포항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오창캠퍼스에서는 Non-IT 분야 등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약 3만톤이다. 반면, 포항캠퍼스에서는 주요 고객사 대응 및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말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약 16만톤이다.

에코프로비엠 연혁

2016~2019	2020~2021	2022~
2016.05 에코프로비엠 창립 2017.04 양극소재 4공장 준공, 본사 이전 2019.03 코스닥 시장 상장 2019.07 2019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2019.10 양극소재 5공장 준공(포항)	2020.01 전가치배터리용 하이니켈계 NCM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2020.02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JV 설립 2020.02 하이니켈계 NCM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SK이노베이션) 2020.07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2020.09 EcoPro BM America, INC. 미국법인 설립 2021.09 하이니켈계 NCM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SK이노베이션) 2021.10 양극소재 포항 CAM6 공장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준공 (연산 약 36,000톤)	2022.01 종속회사 ECOPROBM HUNGARY Zrt. 헝가리 법인 설립 2022.04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MOU 체결 2022.10 양극소재 포항 CAM7 공장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준공 (연산 약 54,000톤) 2022.11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선정 2023.02 EcoCam Canada Inc. 설립 2023.12 하이니켈계 NCA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삼성SDI) 2024.05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 흡수합병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장(오창/포항)

본사 · 에코배터리 오창 캠퍼스



- CAM1 / CAM2 / CAM3 / CAM3N / CAM4 / CAM4N
- 연산 30,000톤 (2024년 말)
- Non-IT 등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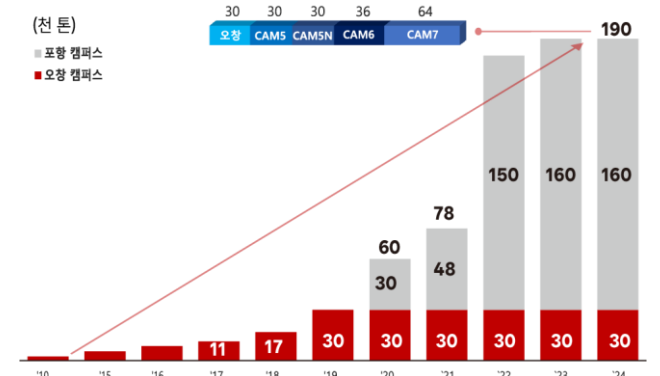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 CAM5 / CAM6 / CAM5N
- CAM7
- 연산 160,000톤 (2024년 말)
- 주요 고객사 · EV용 양극재 중심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생산능력 추이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하이니켈 NCA, NCM 양극재
제조하며, 1Q25기준 사업부별
매출비중은 양극재 및 전구체
99.5%, 기타 0.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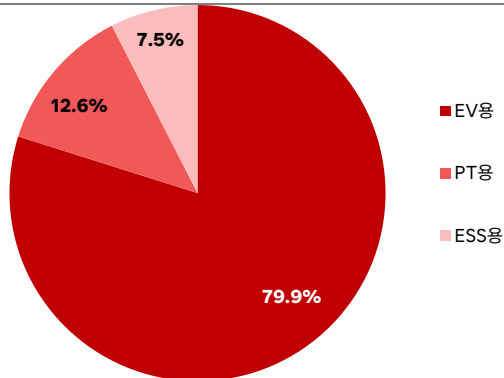
동사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하이니켈 기반의 NCA(Nickel Cobalt Aluminum)와 NCM(Nickel Cobalt Manganese) 양극재이다.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출력 성능이 특징이다. 동사는 EV용 NCM811 양극활물질도 개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으며, NCM811 역시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은 에너지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동사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드니켈(Mid-Nickel), LFP, Sodium 전지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NCA와 NCM 양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다양한 배터리 타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양극재 제품은 전기자동차(EV),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동 공구(Power Tool)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방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제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SDI, SK온 등 글로벌 이차전지 셀 제조업체들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비중은 양극재(양극활물질) 및 전구체가 99.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대수익 및 스크랩 등 기타부문은 0.5%이다. 지역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헝가리가 63.6%로 가장 크고, 이어 중국 9.6%, 국내 9.5%, 미국 7.4%, 말레이시아 3.8%, 일본 3.3%, 기타 2.6%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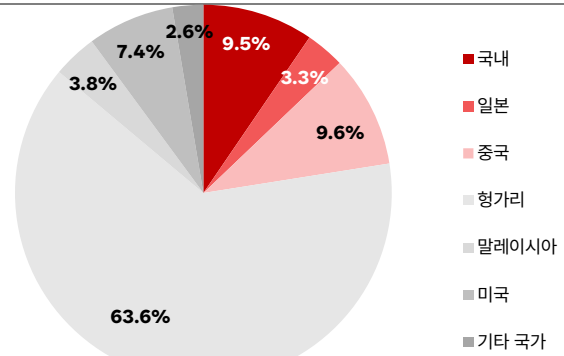
주요 원재료로는 전구체와 리튬이 있으며, 이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동사는 원재료를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및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주요 원재료 매입액은 4,494억 원으로, 전체 매출원가의 75.6%이다.

기종별 매출 비중(1Q25)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 비중(1Q25)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회사

**1Q25말 기준 에코프로이엠을
포함한 총 6개의 비상장 종속회사
보유**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총 6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에코프로이엠은 에코프로비엠(60%)과 삼성SDI(40%)가 공동 출자한 합작 법인으로,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하이니켈(NCA) 기반의 EV, PT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량은 삼성SDI에 공급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5개 종속회사는 모두 에코프로비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캐나다 소재의 EcoCAM Canada Inc., EcoPro CAM Canada, L.P., EcoPro CAM Canada General Partner Inc.와 미국 소재의 EcoPro BM America, INC., 헝가리 소재의 EcoPro BM Hungary Zrt.가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종속회사

(단위: 억 원, %)

회사명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자산총계(2024)	지배지분율
(주)에코프로이엠	2020년 02월 17일	한국	이차전지 소재 등	13,187	60.0
EcoCAM Canada Inc.	2023년 02월 02일	캐나다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3,490	100.0
EcoPro BM America, INC.	2020년 09월 30일	미국	이차전지 소재 등	2.7	100.0
EcoPro BM Hungary Zrt.	2022년 01월 26일	헝가리	이차전지 소재 등	12,388	100.0
EcoPro CAM Canada, L.P.	2023년 02월 02일	캐나다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3,478	100.0
EcoPro CAM Canada General Partner Inc.	2023년 02월 02일	캐나다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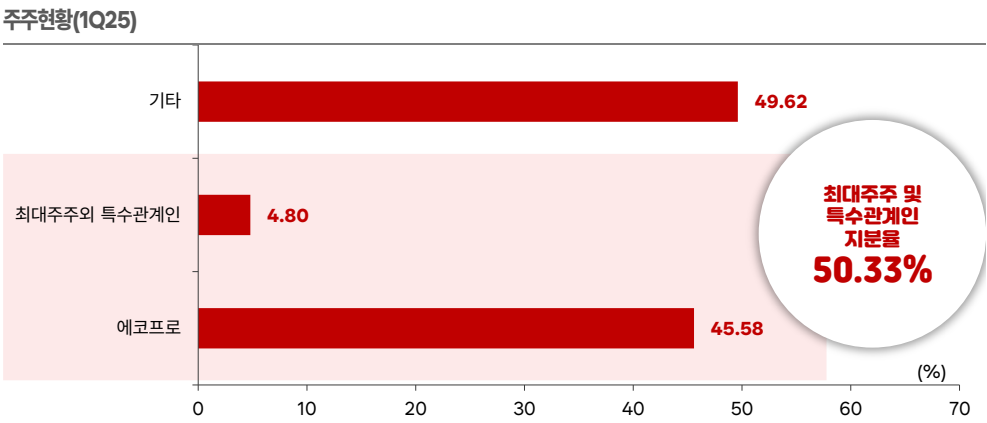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 주주현황

**최대주주는 에코프로로, 1Q25말
기준 지분율은 45.58%**

최대주주는 에코프로로, 1Q25말 기준 지분율은 45.58%이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용 핵심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자재료 사업부와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사업부문을 두 축으로 하는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에코프로는 2016년 전자재료사업부와 2021년 환경사업부를 분할하며 2021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2025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8,06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은 50.33%이다.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양극재는 2차전지 밸류체인의
후방산업으로 전방산업은
EV(80%), ESS, 모바일기기 등

1 양극재는 2차전지 원가비중 40%를 차지하는 4대 핵심요소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더불어 2차전지의 원가비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요소로 최종 적용처로는 80% 이상 전기차(EV)로 사용되며, 전동공구(Power tool), 에너지저장장치(ESS)로도 수요가 증가세이다.

양극재 산업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후방산업으로 전방산업인 전기차(EV), 모바일기기, ESS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동성에 민감하다. 결국 전방산업인 EV, ESS, 모바일기기의 업황 변동은 2차전지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2차전지의 수요가 양극재 등 후방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현재 양극재의 종류로는 소재에 따라 NCM, NCA, LFP, LCO, LMO 등 5종 소재가 있다. 양극재는 리튬과 금속소재를 조합하는 비율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특성이 달라지는데, 니켈(Ni)은 주로 에너지밀도, 코발트(Co)와 망간(Mn)은 안정성, 알루미늄(Al)은 배터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NCM(Nickel-Cobalt-Manganese)

현재 국내업체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삼원계 양극재이다. 니켈 함량에 따라 NCM333은 Low Nickel, NCM523/622는 Mid Nickel, NCM811/9½½은 High Nickel 양극재로 나뉜다. 초기 NCM333 배터리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190km에 불과했으나, 니켈 함량 60% 이상인 NCM622부터 주행거리가 NCM333대비 2배인 400km로 늘었으며,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NCM811로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이다. NCM9½¼(니켈 함량 90%)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최대 300Wh/kg으로 완충 시 주행거리가 550km로 NCM811 대비 20% 이상 개선된다.

NCA(Nickel-Cobalt-Aluminum)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NCM 성능과 유사하나, 알루미늄이 망간을 대체해 에너지밀도뿐만 아니라 에너지출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전동공구(Power tools)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전기차(Audi, BMW 등)에도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FP(리튬인산철)

에너지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으나, 철 소재를 사용해 원가가 대폭 절감되며 폭발, 화재로부터의 안정성도 NCM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ESS 등에 채택률이 NCM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업체들이 LFP 시장을 거의 지배해왔으나, 2026년부터는 국내 배터리기업들도 LFP 양산에 나설 전망이다.

LCO(Lithium Cobalt Oxide)

리튬이차전지 상업화 초기에 주로 소형IT기기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리튬과 코발트만으로 구성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높은 에너지밀도와 우수한 충전 성능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배터리로 많이 사용된다.

LMO(Lithium Manganese Oxide)

리튬, 망간, 산소 화합물을 이용한 일원계 양극재로 주원료로 망간을 이용하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열 안정성도 우수

한 반면, 에너지밀도와 용량이 작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전동공구와 의료기기, 일부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Nissan 자동차의 'LEAF'는 그동안 LMO 시장 확대의 주역이었으나, 2016년 모델부터 NCM 배터리로 전환하였으며,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셀의 고용량화가 진행되면서 LMO 시장의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내 양극재 경쟁사 현황

국내 양극재업체로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등이
대표적

국내 2차전지 양극재업체로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글로벌 Top 5에 에코프로비엠 (1위), 엘앤에프(4위), LG화학(5위) 등 3개사가 포진되어 있었으나, 2024년 들어 중국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글로벌 NCM 양극재 시장 Top 5에는 LG화학(5위)만 입성했으며, 에코프로비엠(6위), 엘앤에프(12위) 등은 순위에서 밀렸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글로벌 13위(5.4만 톤)에서 2024년 글로벌 8위(6.6만 톤)로 5계단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2~2023년 글로벌 1위에서
2024년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글로벌 6위로 순위 하락,
주력 고객사는 삼성SDI, SK온,
일본 무라타 등

에코프로비엠(EcoPro 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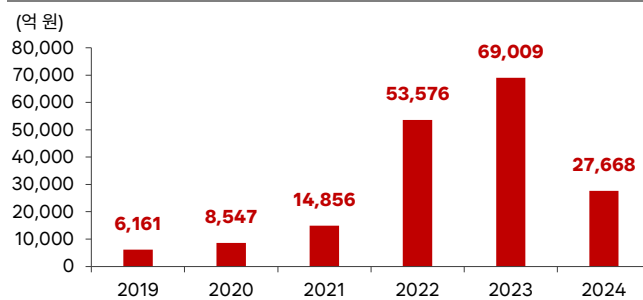
(주)에코프로로부터 2016년 5월 2차전지소재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으로 본사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해 있으며, 양극재 공장은 청주시 오창(1~4N), 포항 영일만(5~5N), 유럽(헝가리), 북미(캐나다)에 구축되어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동사는 2022~2023년 연속으로 글로벌 양극재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중국업체들에 밀려 글로벌 6위업체로 밀렸다. 2024년 기준 글로벌 NCM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6.1%, LFP를 포함한 전체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2.2%를 기록하였다.

2024년 매출액은 2조 7,668억 원으로 전년대비 59.9% 급감하였으며, 매출비중은 NCA, NCM 양극재가 99.8%를 차지하였다. 2024년 고객사비중은 삼성SDI 81%(2.2조 원), SK온 17%(0.5조 원), 기타(일본 무라타) 2%로 추정된다.

2024년 기종별 매출비중을 보면 전기차(EV)가 69%로 최대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 15%, P/T(Power Tool) 14%, 기타 2%를 차지하였다. 동사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산 총 19만 톤으로 오창캠퍼스 생산능력은 3만 톤(CAM 1~CAM4N)으로 주로 Non-IT로 전동공구(P/T) 위주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이며, 포항캠퍼스의 연간 생산능력은 16만 톤(CAM5~CAM7)으로 EV용 양극재 중심 대량 생산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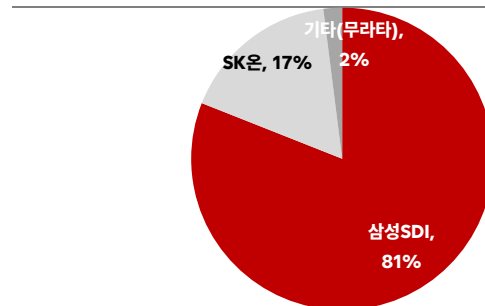
동사는 중장기계획으로 2030년 양극재 생산능력을 연산 71만 톤, 연간 생산/판매량 61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2024년 19만톤대비 향후 6년간 3.7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다. 2030년 지역별 생산능력을 보면 국내 37만 톤, 헝가리 19만 톤, 인도네시아 10만 톤, 캐나다 5만 톤으로 국내 생산 52%, 해외 생산 48%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추이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고객사별 매출비중 추정(2024)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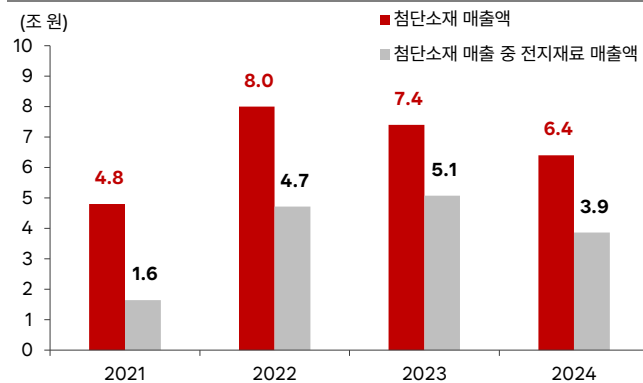
LG화학

**2024년 기준 양극재 생산능력
14만 톤의 LG그룹 배터리소재기업,
첨단소재사업 부문에 양극재사업 포함**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2024년 기준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이 8.8만 톤으로 중국 1~4위 업체들에 이어 글로벌 5위를 기록하였다. 시장점유율은 삼원계 양극재시장의 6.7%, 전체 LFP를 포함한 양극재 시장의 2.4%에 해당한다. SNE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누적 LG화학의 양극재 출하량은 2.8만 톤으로 전년대비 33.3% 증가하여 국내 양극재 업체 중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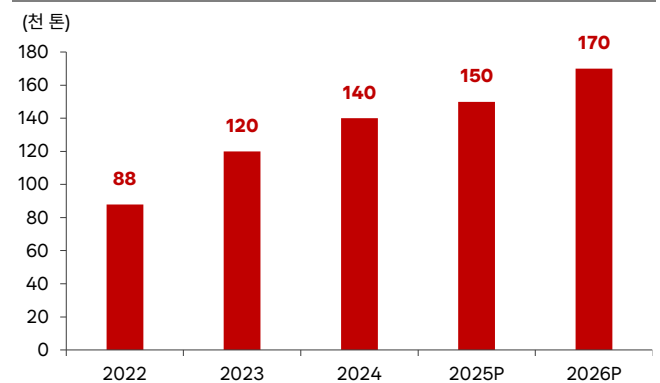
LG화학의 양극재 사업은 사업보고서 상 첨단소재 부문에 속해 있다. 첨단소재 부문은 양극재 외에도 분리막 등 기타 전지소재, OLED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양극재 매출액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4년 연간 실적 IR자료를 보면 첨단소재부문 매출액 중 전지재료 매출비중은 60%로 전지재료 매출액이 약 3.9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LG화학의 전체 연결 매출액은 48.9조 원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이중 첨단소재사업 부문 매출액(내부거래 제거 前)은 6.4조 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다. 그룹내 배터리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을 주력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어 他 양극재 전문업체에 비해 매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2024년에는 북미고객 중심으로 양극재 출하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메탈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LG화학의 첨단소재 부문 매출액 가이드는 6.2조 원으로 전년대비 0.2조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EV시장의 성장 둔화와 배터리 소재가격 약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2022년 8.8만 톤에서 2023년 12만 톤, 2024년 14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15만 톤, 2026년까지는 17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양극재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연산 19만 톤)에 이어 국내 2위 규모이다.

LG화학 첨단소재사업 매출액 추이



자료: LG화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G화학 양극재 생산능력 전망



자료: LG화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엘앤에프(L&F)

**배터리 고객사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 85%, SK온
10%이며,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

엘앤에프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2024년 코스피에 이전 상장한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다. 양극재 매출액은 2023년 역대 최대치인 4조 6,441억 원을 기록했으나, 전기차 캐즘과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으로 2024년 매출액은 1조 9,075억 원으로 59.0% 급감하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엘앤에프의 2024년 기준 양극재 출하량은 5.4만 톤으로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시장 M/S 4.1%를 기록했으며, LFP를 포함한 전체 양극재 시장에서는 M/S 1.5%를 기록하였다. 국내 양극재업체로는 LG화학(8.8만 톤), 에코프로비엠(8.0만 톤), 포스코퓨처엠(6.6만 톤)에 이어 출하량 기준 업계 4위를 기록하였다. 2025년 1~4월 누적 양극재 출하량은 2.2만 톤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여 국내업체 중에서는 LG화학(2.8만 톤)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앤에프의 고객사 매출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 85%, SK온 10%로 고객사 2사 매출비중이 95%에 달한다. 특히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로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공급된다.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매출액 변동에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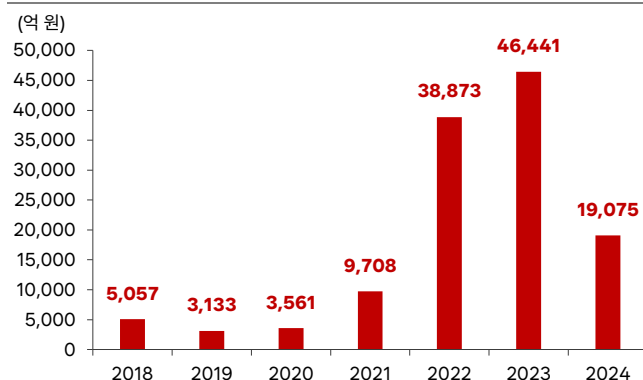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국내 배터리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연산 5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는 중저가형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LFP 제품은 고객사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2026년 양산되면 중국 이외 기업 최초로 LFP 양극재를 대량생산하게 된다. 생산기지는 국내(대구) 및 해외(북미)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국내 생산은 빠르면 2026년말, 북미는 2027년말 양산 목표이다.

엘앤에프는 2027년 제품믹스로 하이니켈 양극재 75%, LFP 양극재 25%로 전망하며, 테슬라로 지난 해 46파이용 니켈 함량 95%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세계최초로 양산한 데 이어 2170 원통형 배터리용 니켈 함량 95% 신제품은 2025년 2분기부터 공급이 본격화되었다. 2170 원통형 N95 제품은 테슬라 Model Y Juniper에 탑재된다.

엘앤에프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원재료 사급(賜給) 계약비중을 2024년 65%에서 2027년까지 93%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고객사 편중구조(LG 85%, SK온 10%)를 2027년까지 LG 비중을 50%까지 낮추고, 북미·유럽·일본 등 신규 해외 고객사를 추가 확보하여 나머지 50%로 고객사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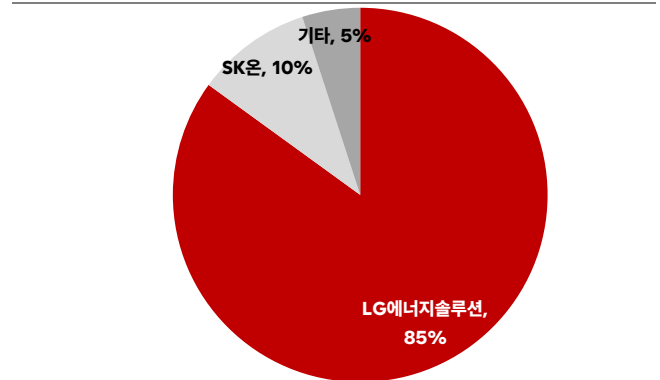
엘앤에프의 2025년 1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26조 원으로 최근 공시된 주요 공급계약을 보면 2023년 2월 테슬라와 약 3.8조 원 규모(7만 톤대 추정)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2024-2025)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3월에는 국내 배터리기업인 SK온과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총 13.2조 원에 달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24년 4월에는 유럽지역(계약상대방 미공개)으로 2025년부터 2030년말까지 총 9.2조 원에 달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총 3.5조 원에 달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계약상대방 미공개). 최근 계약 중 최대 규모는 SK온과 체결한 계약(13.2조 원)으로 공급망 밸류체인은 엘앤에프가 SK온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면 SK온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여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구조로 원재료는 100% 사급으로 조달된다. 엘앤에프는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NCMA95 신규제품 수요 급증으로 2025년 연간 양극재 출하량 목표를 올해 초 제시한 전년대비 30% 증가에서 40% 증가로 상향조정하였다.

엘앤에프 매출액 추이



자료: 엘앤에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엘앤에프 고객사별 매출비중 추정(2024)



자료: 2024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계열 배터리소재기업으로

양극재, 음극재 사업 영위,

2024년 양극재 매출액은 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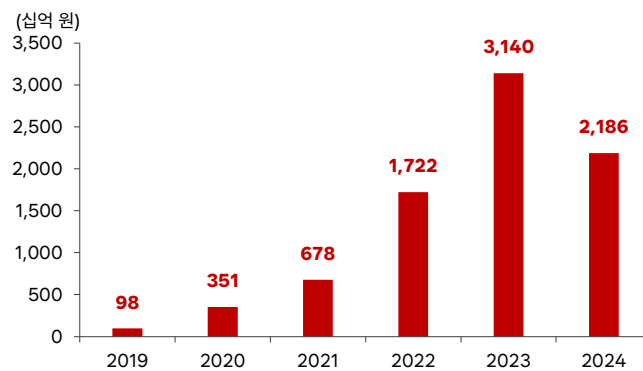
원 규모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 계열 2차전지 소재업체이다.

2024년 매출액 3.7조 원 중 2차전지 소재 매출액은 2조 3,399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2차전지 소재 매출액 중 양극재는 2.2조 원으로 93.5%, 음극재는 1,54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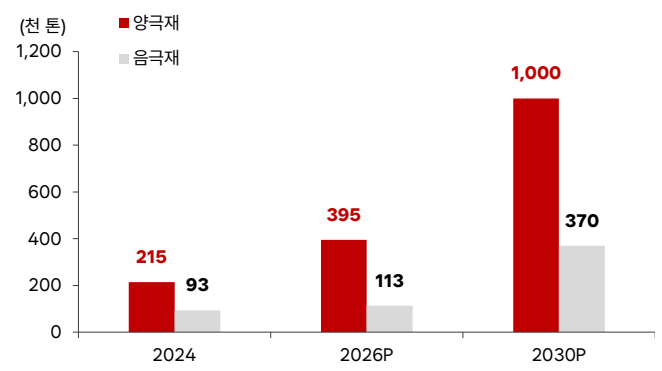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양극재), 광양(양극재), 세종(음극재) 등 국내와 중국, 북미 등에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해 2026년까지 양극재 39.5만 톤, 음극재 11.3만 톤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중장기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는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매출액 추이



자료: 포스코퓨처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스코퓨처엠 배터리소재 생산능력 전망



자료: 포스코퓨처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코스모신소재

코스모그룹 2차전지 소재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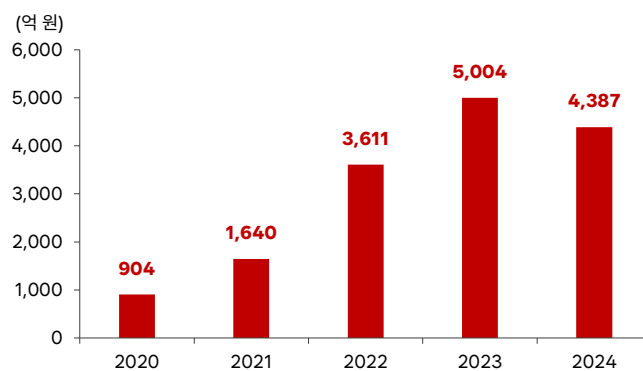
2024년말 양극활물질 생산능력은

10만톤으로 확대

1967년 설립된 첨단소재기업으로 2010년 코스모(COSMO)그룹에 편입되어 코스모화학(주)이 지분율 27.19%를 보유한 모기업이다. 2024년 매출비중을 보면 전체 연결 매출액 5,697억 원 중 양극활물질 4,387억 원(77.0%), 기능성필름 1,143억 원(20.1%), 프린터용 토너 167억 원(2.9%)로 2차전지 양극활물질이 주력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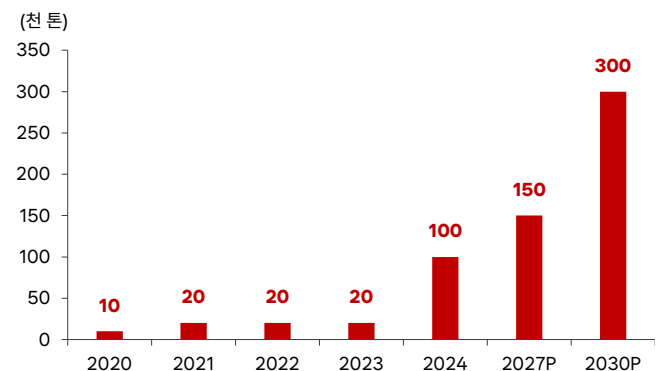
코스모신소재는 2007년 소형 IT기기에 사용되는 LCO 양극활물질 생산을 시작으로 2차전지시장에 진입했으며, 이후 전기차, ESS 등에 적용되는 고밀도, 고출력 양극활물질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양극활물질 생산능력은 기존 2만 톤에서 2024년 12월 연산 80,000톤의 NCM라인이 추가되어 총 생산능력이 기존대비 5배인 1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코스모신소재 양극활물질 매출액 추이



자료: 코스모신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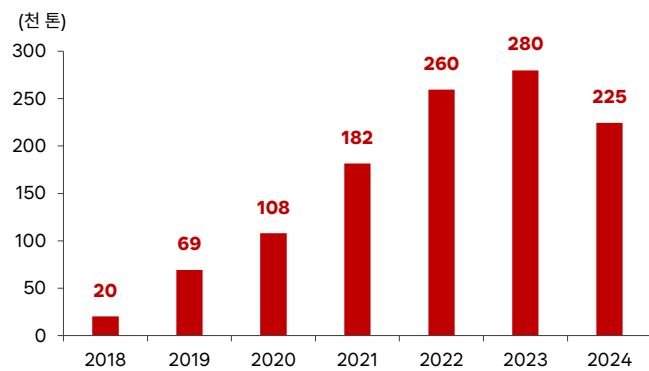
코스모신소재 양극재 생산능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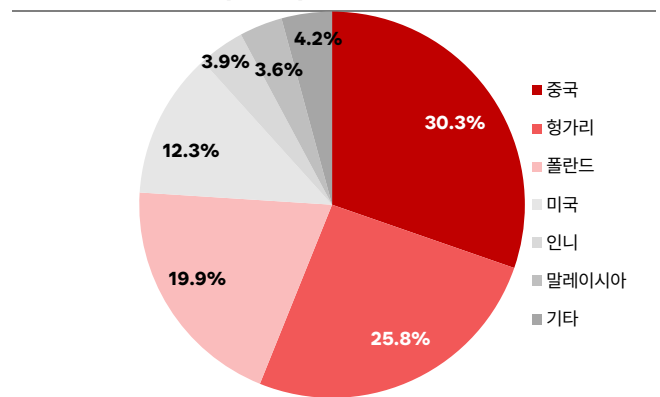
자료: 코스모신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양극재 수출액은**61.5억 달러로 전년대비 51.6%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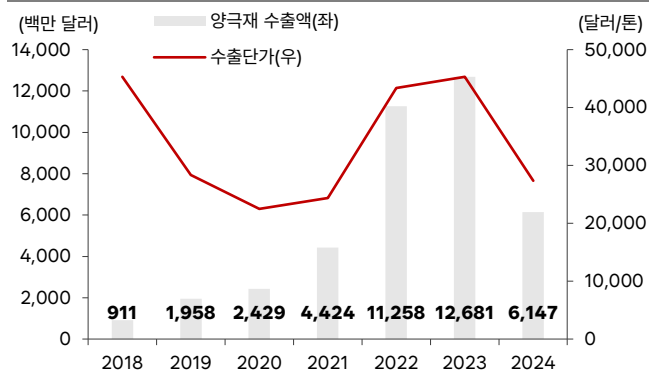
국내 양극재 수출량(HS코드 2841.90)은 2018년 2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3년 역대 최대치인 28만 톤으로 증가해 5개년간 연평균 69.5%로 고성장을 보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해 2024년 수출량은 22.5만 톤으로 전년대비 19.6% 감소하였다. 전기차 캐즘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수출단가(ASP)는 2023년 평균 \$45,298에서 2024년 평균 \$27,374로 39.7% 급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양극재 수출액은 61.5억 달러로 전년(126.8억 달러)대비 51.6% 급감하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4년 양극재 수출국별 비중을 보면 중국 30.3%(68.1만 톤), 헝가리 25.8%(57.9만 톤), 폴란드 19.9%(44.7만 톤), 미국 12.3%(27.6만 톤), 인도네시아 3.9%(8.7만 톤), 말레이시아 3.6%(8.1만 톤), 기타 4.2%(9.5만 톤)를 기록하여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기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국내 양극재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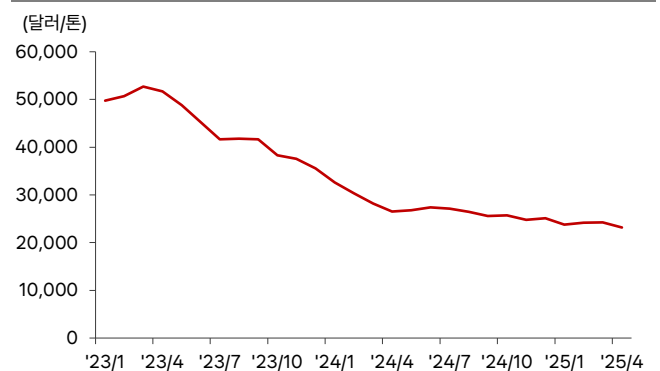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양극재 수출지역 비중(2024년)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양극재 수출액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양극재 월별 수출단가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글로벌 양극재 출하량은**367만 톤 기록, LFP 양극재 64%,****삼원계 NCM 양극재 36% 차지,****중국 기업들의 독주로 국내 기업들은****대부분 순위 및 M/S 하락**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양극재 출하량은 367만 톤으로 소재별로 보면 LFP 양극재 출하량은 2024년 236만 톤으로 전년대비 50.3% 급증한 반면, 국내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원계 NCM 양극재 출하량은 131만 톤을 기록하여 2024년 LFP 양극재 비중은 64%로 전년대비 11%p 상승한 반면, 삼원계 NCM 양극재 비중은 35.6%로 11%p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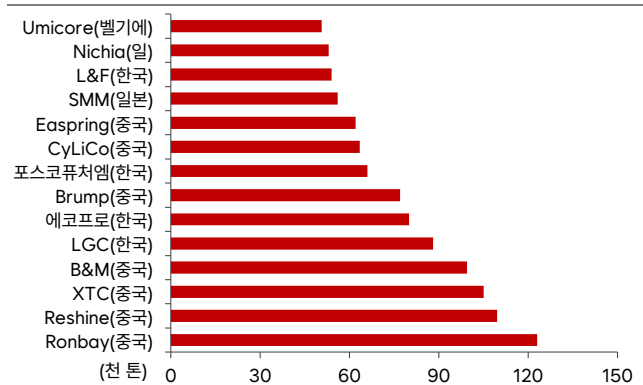
중국산 LFP 배터리 수요 증가로 2024년 글로벌 기업들의 M/S 순위도 크게 변동하였으며, 이는 K-배터리 소재기업들의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글로벌 2위기업인 Ronbay, 8위기업이었던 Reshine, 6위기업이었던 XTC, 3위기업이었던 B&M 등 중국기업들이 2024년에는 글로벌 순위 1~4위권으로 부상했으며, 2022~2023년 글로벌 양극재 1위 기업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6위(시장점유율 2.2%)로 순위가 5계단 하락하였다. 엘앤에프는 2023년 글로벌 4위에서 2024년에는 12위(시장점유율 1.5%)로 8계단이나 하락하였다. LG화학은 전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글로벌 5위(시장점유율 2.4%)를 유지하였으며,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글로벌 13위권에서 2024년 8위(시장점유율 1.8%)로 5계단 상승하였다. SNE리서치의 통계를 요약해 보면 국내 양극재 4사(LG화학, 에코프로BM,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합산 양극재 출하량은 28.8만 톤으로 전년(33.4만 톤)대비 13.8%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 양극재 4사의 합산 시장점유율(M/S)은 삼원계 NCM 양극재 시장에서는 22.0%를 차지했으나, LFP 양극재를 포함한 전체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7.8%를 기록하였다.

2024년 국내외 양극재 시장은 삼원계 NCM(니켈, 코발트, 망간) 금속가격 및 리튬가격 하락 영향으로 매출액과 수익성 동반 악화를 면치 못했으며, 전기차 판매 둔화 영향으로 양극재 신규투자 및 증설투자 등도 지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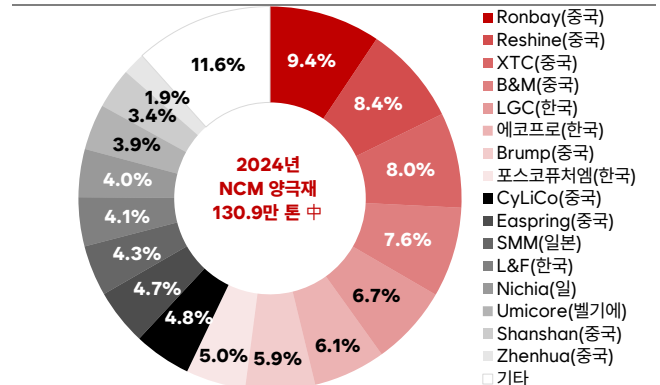
반면 중국업체들은 배터리 안정성과 원가경쟁력으로 LFP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지만, 원가가 저렴한데다 최근 기술개발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캐즘 및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가격인하를 추구하면서 LFP 채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3사들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설 전망이다.

2024년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 순위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삼원계 양극재 M/S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배터리 소재가격 안정으로 수익 정상화 시기 진입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시장
캐즘 및 메탈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실적 악화 불가피**

그동안 동사의 실적부진은 EV 및 Power Tool 부문 수요부진이라는 물량(Q)적인 측면과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가 격 하락이라는 가격(P) 측면에서 모두 실적에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었으나, 2024년 4분기를 바닥으로 2025년 1분기부터 유럽, 북미향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한데다, 배터리 소재가격 하향 안정화로 그동안 메탈가격 하락 영향으로 매출원가에 반영했던 재고평가충당금이 환입되면서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양극재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 중 리튬가격(중국 탄산리튬)을 보면 2022년 11월 Kg당 580위안에서 최근에는 58위안까지 2년여 간 거의 90%나 급락하였으며, 라우 전쟁 발발로 2022년 4월 평균 톤당 \$33,000대까지 급등했던 니켈가격은 2023년부터 낙폭이 확대되어 올해 들어서는 톤당 \$15,000대에서 안정 국면이다.

메탈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소재업체들은 보유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불가피하다. 동사의 경우에도 2021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소재(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가격 상승으로 비싸게 구매한 원재료로 양극재 제품을 만들다 보니 2023년 하반기 이후 양극재 판매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2023년에만 1,653억 원의 재고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 동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말 3,394억 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영향으로 2022년말 8,564억 원, 2023년말 1조 1,088억 원까지 급증했으며, 이후 판매량 감소와 메탈가격 하락 영향으로 2024년말 6,163억 원, 2025년 1분기말 5,57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동기간 동사의 매출액을 보면 2021년 1.5조 원 수준에서 2022년 5.4조 원, 2023년 6.9조 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24년 2.8조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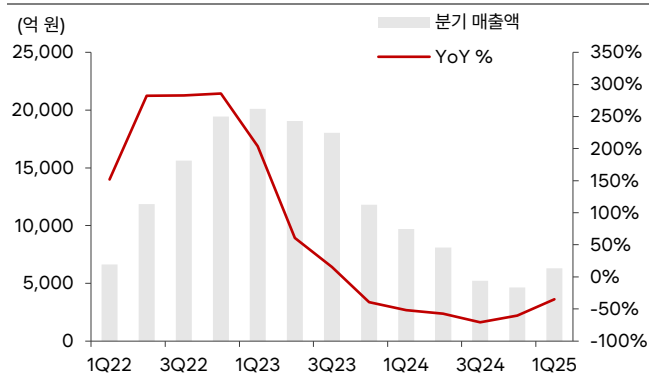
동사는 특히 2023년 4분기 대규모 재고평가손실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1,11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하였다. 양극재 판매 감소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9.3%나 급감한데다, 메탈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메탈가격 안정과 판매량 증가로
1Q25부터 매출액과 수익성 회복
국면 진입**

2024년부터는 메탈가격의 하락 추세가 멈추고 하향 안정화되면서 2023년까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설정했던 손실분이 환입되어 2024년에만 총 856억 원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이익개선에 기여하였다. 2025년 1분기에는 307억 원의 재고평가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유럽 및 미주 판매 증가로 물량(Q)이 늘어나고, 메탈가격이 안정된 국면에서 재고평가 부문에서 실적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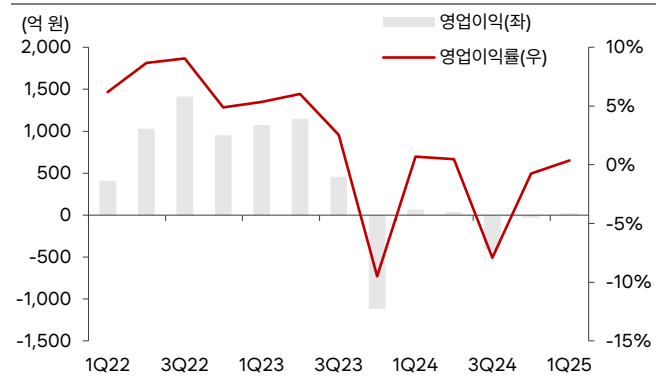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액과 수익성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2025년 1분기부터 실적 정상화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탈가격이 고점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 추세가 멈추고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수익성에 청신호이다. 물량면에서는 2025년 2분기 SK온의 북미 新공장 가동, 북미와 유럽의 신차 출시 효과로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회사측에서도 당초 2025년 가이던스로 지난 해 대비 40%의 판매량 증가를 전망했으나,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 정도 증가해 양극재 판매량은 9만 톤대 중반에 달할 전망이다.

에코프로비엠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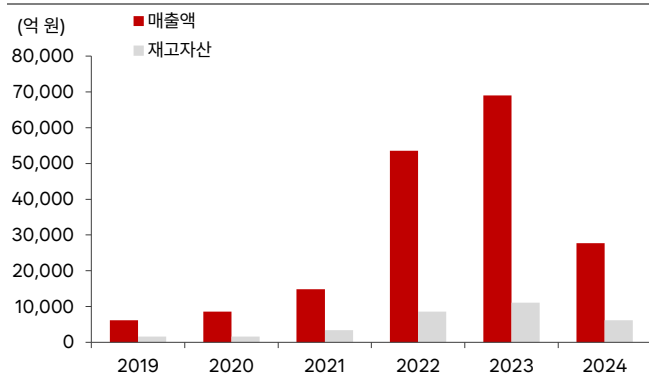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분기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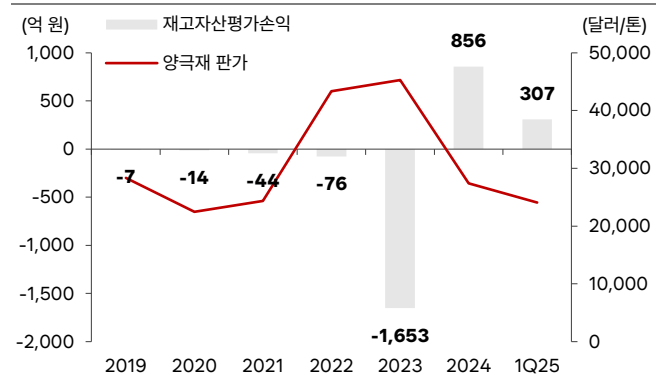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 재고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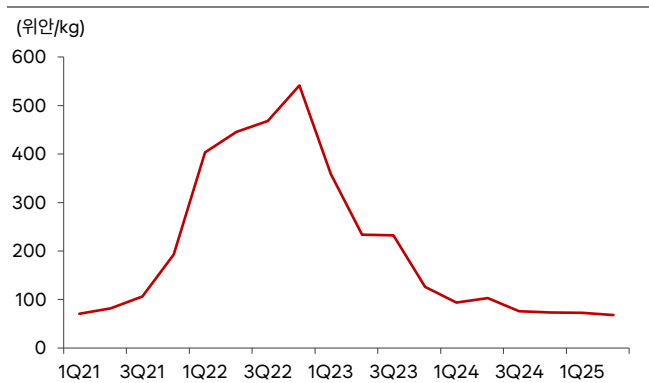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재고자산평가손익 & 양극재 평가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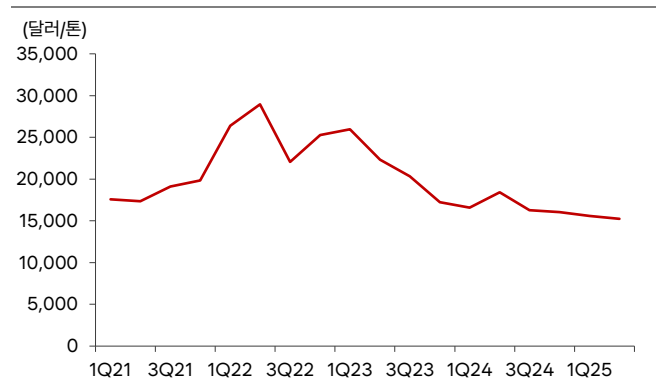
리튬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식: 중국산 99.2% 탄산리튬가격 기준 적용

LME 니켈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헝가리 법인 양산으로 유럽지역 선점효과 기대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연산 5.4만 톤
규모 헝가리 공장 2026년 1분기
상업생산 예정

동사는 유럽 2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연산 5.4만 톤 규모의 3개라인 헝가리 신공장을 구축 중으로 2025년말까지 완공 후 2026년 1분기 1개 라인부터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시장은 동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50%를 헝가리로 수출하였다. 현재 헝가리에는 최대 고객사인 삼성SDI(과도)와 SK온(이반차, 코마룸)이 배터리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헝가리 신공장은 당초 2025년말 상업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소방시설 점검 등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고객사 승인과 상업생산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연산 5.4만 톤은 100% 가동 시 현재 양극재 수출가격을 적용하면 매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헝가리공장은 유럽 2차전지
시장의 배터리 현지화 니즈 및
핵심원자재법(CRMA) 등 원자재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헝가리 공장 양산은 유럽내 배터리 소재 현지화로 EU·영국간 무역협력협정(TCA) 뿐만 아니라 脫중국 원자재 확보를 위한 EU 핵심 원자재법(CRMA) 등 현지화 규제에도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며, 유럽내 생산설비를 확보한 유일한 국내 양극재업체로 유럽에 진출한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업체로도 고객사 다변화가 기대된다.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는 배터리 셀 기준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65% 이상으로 역내산을 유도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가의 10%를 관세로 부과하게 된다. TCA법은 2027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2027년부터는 EU산 양극재 사용이 필수적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는 일명 '핵심원자재법'으로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목표이다. 결국 CRMA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유럽 역내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전략원자재의 채굴역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10%, 역내 가공역량은 최소 40%, 재활용 역량은 최소 15%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가공단계에서 특정국가(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EU 연간 소비의 65%를 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유럽내 양극재 경쟁사로는
Umicore와 BASF 정도에 불과

현재 유럽시장의 양극재 업체로는 벨기에 Umicore와 독일 BASF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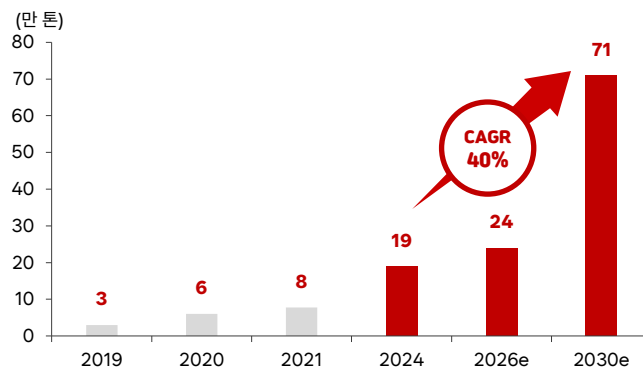
Umicore는 글로벌 최대 도시광산업체이며, 국내 및 중국의 양극재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이전인 2021년까지는 글로벌 양극재 시장에서도 1위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SNE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양극재 출하량이 6.9만 톤으로 글로벌 7위였으나, 2024년 출하량은 5.1만 톤으로 글로벌 14위권으로 밀려났으며, 2024년 글로벌 삼원계 NCM 양극재시장 M/S는 3.9%로 국내 양극재 주요 4개사(에코프로비엠, LG화학,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에 비해 글로벌 M/S 및 절대 물량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다. Umicore는 2025년 3월 27일 Capital Market Day 2025를 통해 2028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배터리 소재 매출액은 2024년 3.9억 유로에서 2028년 11억 유로로 향후 4년간 2.8배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소재 부문 CAPEX는 2028년까지 3.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BASF는 글로벌 최대 화학기업으로 2012년부터 십여 년 이상 양극재 개발 및 제조 노하우를 쌓아왔다. 배터리 소재 글로벌 생산기지는 유럽 역내보다는 중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생산기지인 BASF Shanshan Battery Materials(BSBM)은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법인으로 2024년말 양극재 생산능력이 연산 1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BASF & TODA는 일본 TODA KOGYO CORP와 2015년 설립한 JV로 일본(Onoda)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2024년 증설을 거쳐 2025년 기준 양극재 생산능력이 연산 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30년 중장기목표로 양극재
생산능력은 71만 톤으로 6년간
3.7배 증가, 유럽지역 생산능력은
18만 톤으로 전체의 25.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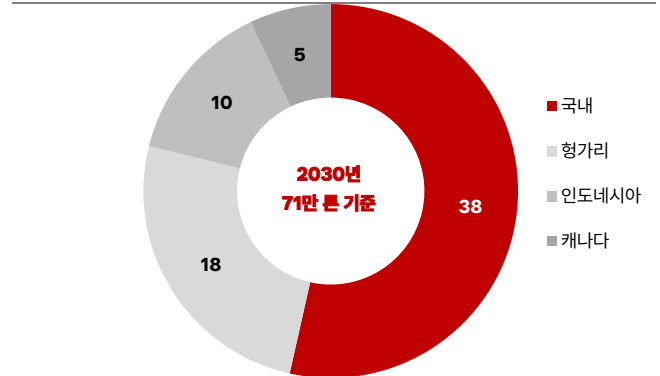
동사는 2030년까지 중장기목표로 양극재 생산능력을 기존 연산 19만 톤에서 2030년까지 71만 톤으로, 생산·판매량은 61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Vision 2030 매출액 목표는 25조 원(영업이익률 10%)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대비로는 연평균(CAGR) 40% 성장하는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국내 생산 38만 톤(BM 25만 톤, EM 13만 톤), 헝가리 18만 톤, 인도네시아 10만 톤, 캐나다 5만 톤으로 유럽지역(헝가리) 생산비중이 전체의 1/4을 차지할 전망이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생산능력 전망: 2024-2030 CAGR 40%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2030년 생산기지별 생산능력 전망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분석

2024년 매출액은 2016년 분할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 영업이익은 분할 이후 처음으로 적자전환, 전기차시장 캐즘 및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 중국산 LFP 배터리 시장 잠식, 주요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

2024년 연결 매출액은 2조 7,668억 원으로 전년대비 59.9% 급감하며 2016년 분할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였다. 영업이익은 -341억 원으로 분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전환하였다.

동사는 기업분할 이후 전기차 및 PT(Power Tools), ESS 등 수요산업 성장으로 매출액이 2016년 998억 원에서 2023년 6조 9,009억 원으로 7개년간 연평균 83.1%의 고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기차 시장의 캐즘 영향과 리튬, 니켈 등 주요 배터리소재가격 하락에 따른 외형 축소, 주력인 유럽시장의 전기차 판매 및 배터리 수요 감소, 중국산 LFP 배터리의 시장 잠식에 따른 하이니켈 삼원계 시장 M/S 하락, 주요 고객사 재고조정 등 악재가 겹치며 기업분할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역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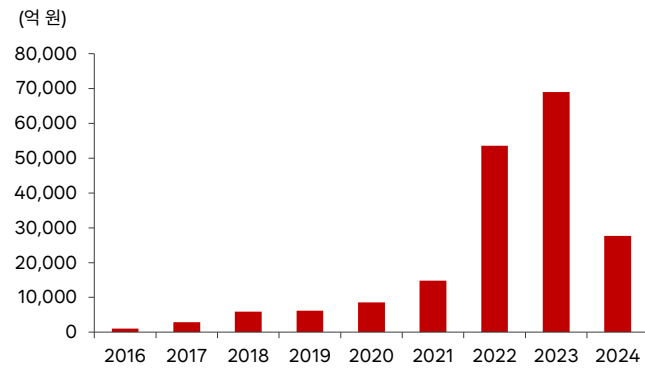
주요 기종별 매출액을 보면 EV용 매출액은 1.9조 원으로 전년대비 66.9% 급감하였으며, 매출비중은 69.0%로 전년대비 14.6%p 하락하였다. PT(Power Tools) 부문 매출액은 3,874억 원으로 전년대비 56.2% 감소하여 매출비중은 14.0%를 기록하였다. ESS용 매출액은 4,704억 원으로 전년대비 91.7% 급증하여 주요 제품군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ESS 부문 매출비중은 17.0%로 전년대비 13.4%p 상승하였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SDI와 SK온으로 추정되며, 양사 합산 매출액은 전체 매출비중의 97.2%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향 매출액은 2조 2,252억 원으로 전년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SK온 매출액은 4,655억 원으로 전년대비 81.8%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DI향 매출비중은 80.4%로 전년대비 19.6%p 상승하였으며, SK온 매출비중은 16.8%로 전년대비 20.4%p 하락하였다. 기타(일본 무라타 등) 업체 매출액은 762억 원으로 전년대비 47.0% 감소하여 매출비중은 2.8%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국내 매출액은 6,462억 원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하였고, 최대 판매지역인 유럽지역(헝가리) 매출액은 1조 3,586억 원으로 전년대비 55.6% 감소하여 전체 매출 감소분(4.1조 원)의 41.1%를 유럽지역이 차지하였다. 중국향 매출액은 4,255억 원으로 전년대비 57.4% 감소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매출액은 1,844억 원으로 전년대비 39.7% 감소하였고, 특히 미주 매출액은 663억 원으로 전년(1조 4,277억 원)대비 95.4% 급감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일본 매출액은 403억 원으로 전년대비 33.7% 감소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이 역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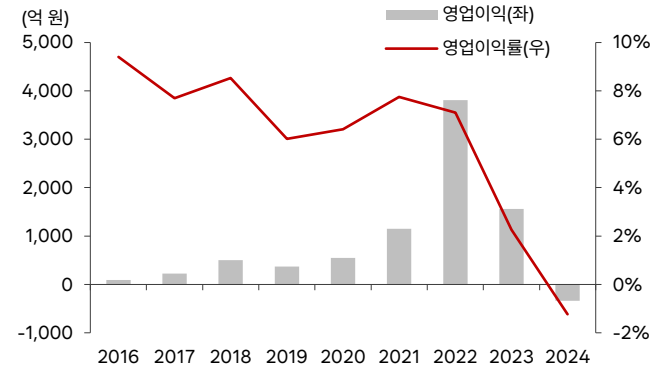
2024년 영업이익률은 -1.2%로 전년(2.3%)대비 3.5%p 하락하였다. 매출액 규모 자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영향으로 매출원가율이 96.6%로 전년대비 0.9%p 상승한데다 판매비율이 4.7%로 전년대비 2.7%p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2023년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한 1,653억 원 중 2024년에는 메탈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856억 원이 환입되면서 영업적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분을 제외한다면 2024년 실제 영업손실은 1,19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3%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코프로비엠 연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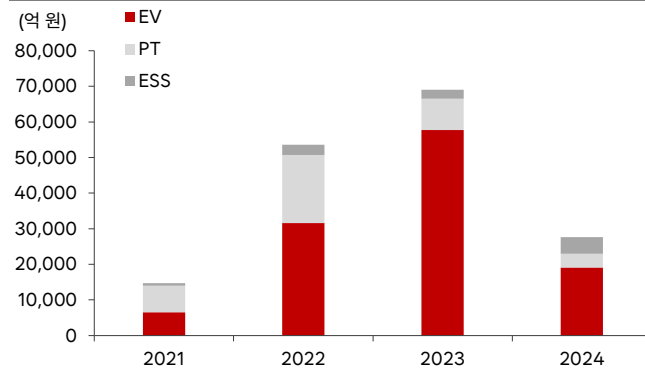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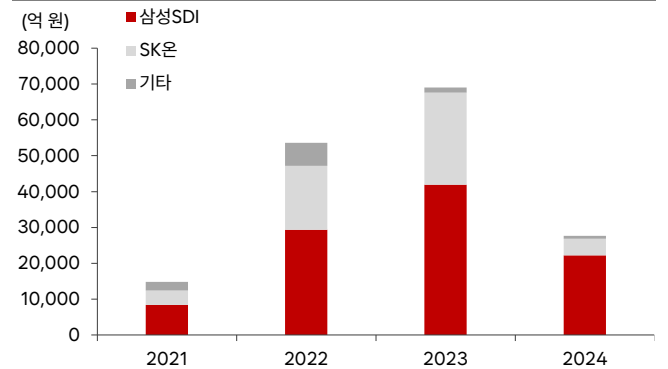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종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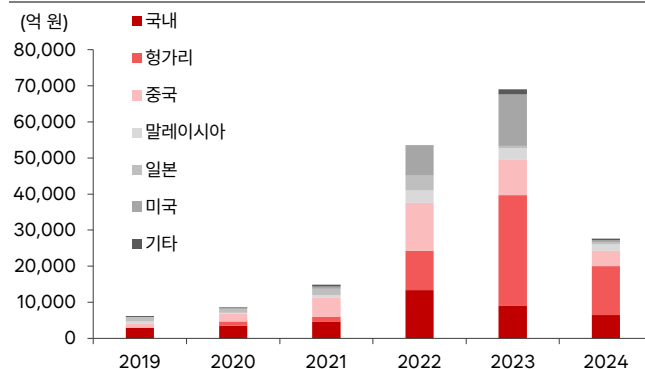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주요 고객사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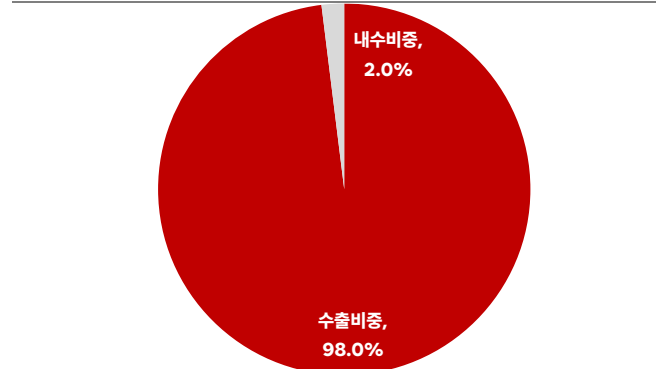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코프로비엠 내수·수출 비중(2024)



자료: 에코프로비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실적 전망

**1Q25 매출액 6,298억 원으로
QoQ 35.5% 증가하며
8분기만에 매출액 반등 성공,
영업이익은 QoQ 흑자전환 성공**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6,29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1%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35.5%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2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66.0% 감소한 수치이나, 직전분기대비로는 흑자전환하였다. 영업이익률은 0.4%로 전년동기대비로는 0.3%p 하락하였으나, 직전분기대비로는 1.1%p 상승하였다.

기종별 매출액을 보면 EV용 양극재는 5,0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75.9% 급증하며 전분기대비 매출증가를 견인하였다. PT용 매출액은 79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12.8% 증가하였다. ESS 등 기타 매출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8% 감소하였으며, 직전분기대비로도 56.4% 급감하였다. 기종별 매출비중을 보면 EV용 79.9%, PT용 12.6%, ESS 등 기타 부문이 7.5%를 차지하였다.

고객사별 매출액을 보면 고객사 A(삼성SDI 추정)는 4,150억 원, 고객사 B(SK온 추정)는 1,684억 원, 기타(무라타 등) 463억 원으로 2025년 1분기 고객사별 매출비중은 삼성SDI 65.9%, SK온 26.7%, 기타 7.4%를 차지하였다.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EV용 양극재 출하량 증가, 특히 유럽向 매출액이 직전분기대비 75.9%나 급증한데다, 미국향 매출액은 직전분기대비 187.7%나 급증하였고, 지난 해에 이어 1분기에도 재고평가손실 환입액이 307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총당금 환입분을 제하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4.5%로 추정된다.

**2025년 매출액은 3조 1,500억원,
영업이익은 318억 원 전망,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로 상저하고로 매출 증가 예상**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조 1,5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8억 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할 전망이다. 영업이익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1.0%로 저수익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 양극재 수출가격은 톤당 \$24,000(3,500만 원)을 적용하였으며, 판매량은 90,000톤을 반영하였다. 판매가격(P)은 전년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나, 판매량(Q)이 전년대비 24% 증가하며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공장 가동률은 1분기에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2분기에도 50%를 하회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50% 이상으로 가동률이 회복될 전망이다. NCM 제품은 Ford, Nissan 신모델 출시와 함께 SK온으로 북미向 출하가 증가할 전망이다. NCA 제품은 유럽시장 회복(BMW, Audi)으로 출하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2분기부터는 메탈가격 안정으로 P효과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량(Q)이 증가하면서 하반기까지 분기별 외형이 성장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재고자산충당금 환입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2025년 실적은 2분기부터 SK온의 북미 신공장 가동 및 북미/유럽 신차에 따른 전기차 및 NCM 양극재 판매 증가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다. 헝가리 공장 가동시점은 기존에는 2025년 4분기였으나, 2026년 1분기로 순연되어 2025년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4,856	53,576	69,009	27,668	31,500
양극재	14,806	53,399	68,868	27,617	31,440
기타	51	177	141	51	60
영업이익	1,150	3,807	1,560	-341	318
영업이익률	7.7	7.1	2.3	-1.2	1.0
지배주주순이익	1,008	2,323	-87	-965	-360
매출증가율	73.8	260.6	28.8	-59.9	13.8
영업이익증가율	110.0	230.9	-59.0	적전	흑전
순이익증가율	109.6	178.8	-79.9	적전	적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주가는 PBR 6.0배로 코스닥 평균 및 동종업종 대비 고평가 수준

현재주가는 수준은 2025년 추정 BPSC대비 PBR 6.0배로 코스닥평균(2.5배) 및 2차전지 양극재 3개사(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평균인 2.9배 대비 두배 이상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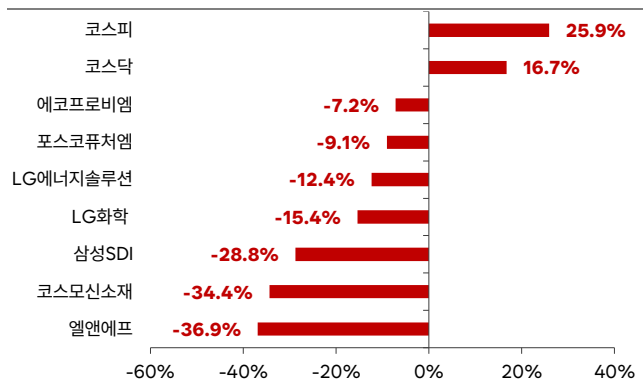
동사의 주가는 연초 이후 7.2% 하락하여 동기간 16.7% 상승한 코스닥지수대비 23.9%p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배터리 양극재 경쟁사들의 연초대비 주가수익률을 보면 엘앤에프는 -36.9%로 경쟁사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코스모신소재 -34.4%, 포스코퓨처엠 -9.1%를 기록하여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였으며, 2차전지 업종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이다. 2차전지 업종의 약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기차시장의 캐즘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 트럼프 2기 정부의 IRA 법안 폐지 및 보편관세 부과 이슈 등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중국산 LFP 배터리의 시장 잠식에 따른 삼원계 양극재 시장 축소, 주가 고평가 부담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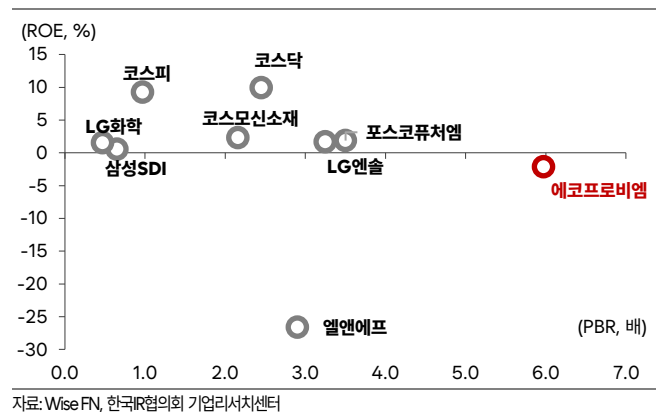
동사의 주가는 2023년 7월말 최고가인 584,000원으로 시가총액이 57조 원까지 급증하기도 했으나, 현재 주가는 2년여 만에 고점대비 82.5% 하락한 수준이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PBR 기준 여전히 경쟁업체대비 두배 이상 높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향후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여부는 동사의 최대 수요시장인 유럽시장의 배터리 수요 성장, 최대 고객사인 삼성SDI의 실적 회복, 헝가리 신규공장의 유럽시장 선점에 따른 유럽내 현지화 수혜 및 고객사 다변화, SK온의 북미 새공장 가동에 따른 판매 증가 여부 등에 달려 있다.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업체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ROE-PBR 밸류에이션 비교(2025E)



Peer Valuation

(단위: 억 원, %, 배)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알엔에프	코스모신소재
시가총액		99,757	713,700	149,303	142,072	100,082	18,558	10,989
자산총계	2022	33,742	382,994	679,738	302,575	46,375	30,239	4,513
	2023	43,618	454,371	774,667	340,389	63,346	33,514	6,727
	2024	43,237	603,068	938,578	405,973	79,325	27,998	7,845
	2025E	49,013	658,607	984,469	447,035	92,593	30,148	8,761
자본총계(지배)	2022	13,634	187,322	314,506	164,857	24,710	12,797	2,512
	2023	13,715	202,006	321,926	185,114	23,502	10,972	4,788
	2024	17,120	211,162	332,842	197,664	29,703	7,136	4,955
	2025E	16,760	219,527	353,292	213,890	32,454	5,877	5,076
매출액	2022	53,576	255,986	509,833	201,241	33,019	38,873	4,856
	2023	69,009	337,455	552,498	214,368	47,599	46,441	6,296
	2024	27,668	256,196	489,161	165,922	36,999	19,075	5,697
	2025E	31,500	260,376	499,959	149,566	38,005	23,665	5,619
영업이익	2022	3,807	12,137	29,794	18,080	1,659	2,663	325
	2023	1,560	14,864	18,523	15,455	359	-2,223	323
	2024	-341	-9,046	-5,632	2,734	7	-5,587	250
	2025E	318	16,666	18,887	-1,987	821	-1,692	162
영업이익률	2022	7.1	4.7	5.8	9.0	5.0	6.9	6.7
	2023	2.3	4.4	3.4	7.2	0.8	-4.8	5.1
	2024	-1.2	-3.5	-1.2	1.7	0.0	-29.3	4.4
	2025E	1.0	6.4	4	-1	2	-7	3
당기순이익(지배)	2022	2323	7672	18454	19521	1183	2700	277
	2023	-87	12372	13378	20092	287	-1943	270
	2024	-965	-10187	-6909	5993	-2123	-3779	176
	2025E	-360	3630	5,426	1,249	599	-1,731	118
PER	2022	37.9	131.8	25.5	21.4	118.0	23.1	57.1
	2023	na	80.9	29.2	16.6	968.7	na	170.8
	2024	na	na	na	29.2	na	na	94.9
	2025E	na	196.6	31	110	180	na	93
PBR	2022	6.6	5.4	1.5	2.4	5.6	4.5	6.4
	2023	20.5	5.0	1.2	1.7	11.8	6.2	10.0
	2024	6.3	3.9	0.6	0.8	3.7	3.8	3.4
	2025E	6.0	3.3	0	1	4	3	2
ROE(지배)	2022	24.3	5.8	7.0	12.5	4.9	28.3	12.1
	2023	-0.6	6.4	4.2	11.5	1.2	-16.4	7.4
	2024	-6.3	-4.9	-2.1	3.1	-8.0	-41.7	3.6
	2025E	-2.1	1.7	1.6	0.6	1.9	-26.6	2.4
현금배당수익률	2022	0.5	0.0	1.7	0.2	0.2	0.3	0.0
	2023	0.0	0.0	0.7	0.2	0.1	0.0	0.0
	2024	0.0	0.0	0.4	0.4	0.0	0.0	0.0
	2025E	0.0	0.0	0.6	0.4	0.1	0.0	0.0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Peer 실적 추정치는 Fnguided 컨센서스 기준, 6월 20일 기준

⚠ 리스크 요인

1 미국 IRA 폐지로 전기차시장 캐즘 장기화 우려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임박

미국이 바이든정부에서 추진해 온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사업에 지원해 온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6일 발표한 IRA 개정안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시한이 기존 2032년에서 법안 제정 후 180일로 앞당겨져, 세액공제 종료시한까지 불과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기존 안 대비 최대 7년이나 조기에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차량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상원안에서는 배터리업체에 제공하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기간을 2032년으로 유지되면서 앞서 하원의 개정안(폐지시한을 2031년으로 1년 당기는)보다는 배터리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장기화하거나,逆성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는 전기차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및 소재업체에도 리스크이다.

2 중국산 LFP에 밀린 삼원계 양극재시장

배터리 안정성과 원가경쟁력으로 LFP 배터리가 부상하면서 하이니켈 삼원계 시장 M/S는 축소

삼원계(NCM, NCA)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국내 양극재 업체에게는 중국산 LFP의 부상도 리스크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안정성과 원가경쟁력으로 중국업체들이 LFP 생산능력을 가파르게 늘려 2024년 LFP 양극재 출하량이 236만톤으로 전체 양극재 출하량(367만톤)의 64%를 차지한 반면,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은 131만 톤으로 삼원계 비중은 3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LFP의 수요 증가로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중국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1~4위를 독차지하였으며,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순위는 뒤쳐졌다. 2022~2023년 글로벌 1위로 부상했던 동사는 2024년에는 글로벌 6위권으로 밀려났으며, 국내 경쟁사인 엘앤에프는 2023년 글로벌 4위에서 2024년에는 12위권으로 크게 뒤쳐졌다.

LFP 배터리는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밀도나 주행거리에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화재위험으로부터 하이니켈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데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메이커들이 보조금 혜택 축소로 전기차 원가절감에 나서면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체에서도 LFP 양산에 나서고 있지만 본격 양산은 2026년부터로 당분간 중저가 EV시장에서는 중국업체들의 시장 잠식이 지속될 전망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4,856	53,576	69,009	27,668	31,500
증가율(%)	73.8	260.6	28.8	-59.9	13.8
매출원가	12,955	48,414	66,075	26,720	29,862
매출원가율(%)	87.2	90.4	95.7	96.6	94.8
매출총이익	1,901	5,162	2,934	948	1,638
매출이익률(%)	12.8	9.6	4.3	3.4	5.2
판매관리비	751	1,355	1,374	1,290	1,320
판매비율(%)	5.1	2.5	2.0	4.7	4.2
EBITDA	1,584	4,455	2,487	755	1,525
EBITDA 이익률(%)	10.7	8.3	3.6	2.7	4.8
증가율(%)	72.9	181.2	-44.2	-69.6	101.9
영업이익	1,150	3,807	1,560	-341	318
영업이익률(%)	7.7	7.1	2.3	-1.2	1.0
증가율(%)	110.0	230.9	-59.0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6	-581	-858	-589	-628
금융수익	128	1,893	1,899	1,128	996
금융비용	132	2,141	2,406	1,754	1,639
기타영업외손익	-2	-333	-351	37	15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75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144	3,225	777	-930	-310
증가율(%)	140.3	181.9	-75.9	적전	적지
법인세비용	166	499	230	-345	-110
계속사업이익	978	2,727	547	-585	-20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78	2,727	547	-585	-200
당기순이익률(%)	6.6	5.1	0.8	-2.1	-0.6
증가율(%)	109.6	178.8	-79.9	적전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008	2,323	-87	-965	-360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09	-2,413	206	6,701	888
당기순이익	978	2,727	547	-585	-200
유형자산 상각비	406	615	885	1,056	1,154
무형자산 상각비	28	33	42	41	53
외환손익	0	24	22	6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674	-6,862	-3,843	6,501	-995
기타	253	1,050	2,553	-374	87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73	-5,347	-6,725	-10,218	-4,26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7	-560	385	0	-6
유형자산의 감소	0	1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360	-4,553	-7,562	-10,238	-5,500
기타	-6	-235	452	20	1,24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836	9,932	8,474	3,231	4,244
차입금의 증가(감소)	2,754	3,942	5,242	-918	5,196
사채의증가(감소)	817	0	3,899	1,525	0
자본의 증가	188	6,246	0	0	0
배당금	-94	-210	-439	0	0
기타	171	-46	-228	2,624	-952
기타현금흐름	0	-15	-32	151	-113
현금의증가(감소)	454	2,157	1,923	-135	758
기초현금	592	1,046	3,204	5,127	4,992
기말현금	1,046	3,204	5,127	4,992	5,750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7,391	22,743	24,435	13,780	16,324
현금성자산	1,046	3,204	5,127	4,992	5,750
단기투자자산	18	314	5	227	239
매출채권	2,474	8,774	7,670	1,422	3,555
재고자산	3,394	8,564	11,088	6,163	5,670
기타유동자산	459	1,888	545	975	1,110
비유동자산	6,867	10,999	19,183	29,457	32,689
유형자산	6,388	10,035	18,242	27,933	32,279
무형자산	121	134	143	188	134
투자자산	19	514	179	222	228
기타비유동자산	339	316	619	1,114	48
자산총계	14,259	33,742	43,618	43,237	49,013
유동부채	6,129	15,479	21,313	12,972	14,873
단기차입금	2,650	3,778	10,729	7,692	7,632
매입채무	1,423	7,361	7,341	2,042	2,552
기타유동부채	2,056	4,340	3,243	3,238	4,689
비유동부채	2,168	3,381	6,311	10,494	14,569
사채	0	0	4,029	5,176	5,176
장기차입금	1,935	3,133	1,895	5,074	9,119
기타비유동부채	233	248	387	244	274
부채총계	8,297	18,860	27,624	23,466	29,442
지배주주지분	5,517	13,634	13,715	17,120	16,760
자본금	115	489	489	489	489
자본잉여금	2,929	8,775	9,136	9,151	9,151
자본조정 등	233	122	221	272	27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74	114	1,107	1,107
이익잉여금	2,240	4,322	3,753	2,754	2,395
자본총계	5,961	14,882	15,994	19,770	19,570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108.1	37.9	N/A	N/A	N/A
P/B(배)	20.9	6.6	20.5	6.3	6.0
P/S(배)	7.3	1.6	4.1	3.9	3.2
EV/EBITDA(배)	72.4	21.8	119.4	164.7	79.7
배당수익률(%)	0.2	0.5	0.0	0.0	0.0
EPS(원)	1,145	2,433	-89	-987	-368
BPS(원)	5,930	13,941	14,023	17,505	17,137
SPS(원)	16,872	56,104	70,560	28,290	32,208
DPS(원)	227	450	0	0	0
수익성(%)					
ROE	20.3	24.3	-0.6	-6.3	-2.1
ROA	8.8	11.4	1.4	-1.3	-0.4
ROIC	13.2	21.4	3.9	-2.8	3.6
안정성(%)					
유동비율	120.6	146.9	114.6	106.2	109.8
부채비율	139.2	126.7	172.7	118.7	150.4
순차입금비율	74.9	40.1	82.2	72.1	96.7
이자보상배율	25.6	17.0	2.2	-0.4	0.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2.2	1.8	0.6	0.7
매출채권회전율	9.1	9.5	8.4	6.1	12.7
재고자산회전율	6.0	9.0	7.0	3.2	5.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코프로비엠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6.24	에코프로비엠-LIB 소재가격(P) 안정, 물량(Q) 증가로 턴아라운드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